

# 야심작 쏘울·스포티지R 고속성장 주도

### ■ 기아차 광주공장 사상 첫 40만대 돌파

## ‘디자인 경영’ 호평 속 국내외 인기 노사 ‘50만 재편사업’ 합의도 한몫

기아차광주공장이 지난 10월과 11월 두달 연속 월별 생산 최고 기록을 바꿔치며 이어 드디어 사상 첫 연간 생산 40만대를 돌파했다.

2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은 40만1043대로, 지난 2006년 30만대(31만2622대)를 기록한 이후 불과 4년만에 40만대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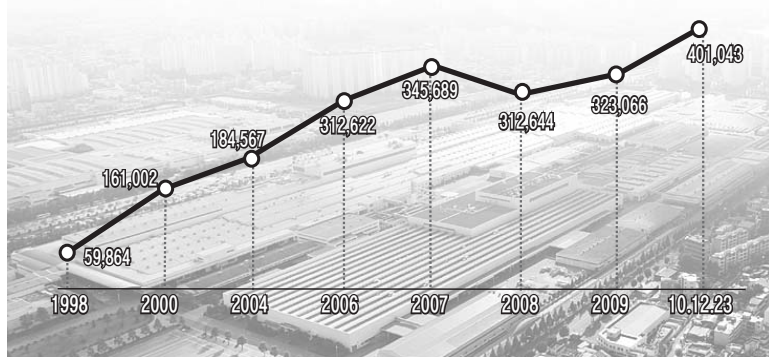
광주공장은 지난 1998년 5만9864대(매출 6200억원) 생산에 불과했지만 2000년 16만1002대(1조7000억원), 2004년 18만4567대(2조4000억원), 2006년 31만2622대(4조9000억

원), 2007년 34만5689대(5조5000억원)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생산량이 31만2644대(4조9000억원)로 줄었다가 지난해 32만3066대(5조5000억원)로 다소 회복했으며, 올해 사상 첫 40만대를 돌파했다.

40만대 돌파는 광주공장의 야심작 ‘쏘울’과 ‘스포티지R’이 주도했다.

올들어 지난 23일까지 쏘울은 15만 5484대, 스포티지R(구 스포티지 포함)은 10만7672대, 봉고트럭 9만426대, 뉴 캔센스 4만3673대, 대형버스 및 군수차량이 3788대 등을 생산했다. 이 중 내수는 11만6859대, 수출은

■ 기아차 광주공장 연도별 생산량



28만4184대로 수출이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기아차 ‘디자인 경영’의 상징인 쏘울이 북미·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인기가 여전하고, 스포티지R도 올해 3월 출시 이후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광주공장의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스포티지R은 세계적 권위의 ‘2011 iF 디자인상’을 받은 데 이어,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2010 우수디자인상’, 미국의 ‘2010 굿디자인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또 호주·뉴질랜드·브라질·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 등 호평 속에 성장세가 눈에 띈다.

앞서 광주공장은 지난 11월 말 연 생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동안 최고기록이었던 2007년 34만 5689대를 1만8000대 초과해 36만 3697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 10월과 11월 월별 생산 대수를 두달 연속 경신했다. 광주공장은 10월 4만2250대를 생산해 2006년 11월(4만300대) 이후 48개월만에 4만대를 넘어섬에 월간 생산량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어 11월에는 4만8227대를 생산해 한 달 만에 또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같은 신기록 행진은 노사 합의로 구축한 50만대 재편 사업이 본격 가동된 결과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지난 2월 노사 합의에 따라 급물살을 탄 기아차 광주공장의 50만대 재편 사업은 3월 스포티지R의 성공적인 출시에 이어 지난 6월 광주 2공장의 스포티지R과 쏘울 혼류 생산 및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35대에서 42대 체제로 전환했다. 또 지난 9월에는 1공장의 쏘울 생산을 시간당 37대에서 42대로 증산하기로 노사가 최종 합의함에 따라 50만대 생산 체제가 완성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 주간 증시 포커스

## 코스피 중기 상승 추세 유효 길게 보고 주도주 중심 접근

외국인들이 수급을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4주째 상승했으며, 월간 수익률도 7%에 육박(12월 상승률·MSCI월드지수 4.9%·MSCI이머징지수 3.5%)했다.

9월 이후 국내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멘텀은 크게 3가지다. ▲안정적인 국내 경기 여건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집행으로 가속화된 유동성 ▲중국발 긴축 및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의 완화가 그것이다. 아직까지 이들 모멘텀에 급격한 변화는 없다.

2011년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해 질적인 성숙을 기대하는 시점이다. 또 지난주에는 이미징 증시에 유입되는 해외 뮤추얼 펀드 자금이 16주만에 이탈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했다.

물론 유럽 국가들의 재정 불안이나 미국의 더딘 경제 정상화 등은 단숨에 해결될 악재들이 아니지만 유럽발 악재가 프랑스나 독일 등 주요 경제권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금주에 발표된 미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정적인 분위기 형성과는 달리 수수의 대형주가 주도하는 율리현상과 연말 도래에 따른 시장

에너지의 약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2010년 국내 증시는 금주 목요일(30일)에 폐장되며, 배당 권리부 매수는 화요일(28일)까지 가능하다. 물론 배당락일(29일)의 지수 하락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지만, 최근 5년을 보면 상승장에서 배당락 지수는 하락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올해도 지수 상승에 따른 양호한 투자심리를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코스피 중기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 조정시 매수 전략을 유지한다. 종목 선택은 빠른 순환매에 뒤쫓아 가기보다 길게 보고 주도주를 따라가는 것이 나아 보인다.

IT, 자동차, 화학, 증권 등이 선행 업종 1순위로, 선진국의 경우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라는 점에 착안해 에너지 및 자원개발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고객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차 제공

#### 현대차 광주지역본부 '365일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

현대자동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재준)가 26일 업계 최초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승차를 제공·반납하는 '365일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밝혔다.(사진) 이 서비스는 담당직원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예약한 시승차를 제공하고 시승을 마친 고객에게 차를 받아 반납하는 고

객 맞춤형 시승 서비스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입차에서도 하지 않은 파격 서비스다.

현대차 광주시승센터는 아반떼·쏘나타·제네시스 등 시승차 10대(엑센트, 아반떼, 쏘나타, 제네시스, 에쿠스, 투싼X, 안터페, 베라크루즈, 제네시스 쿼페)를 보유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헬스케어·로봇 등 신제품·프리미엄 가전

##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 주력

#### 세탁기·청소기는 해외 이전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내년부터 저가 가전제품의 생산라인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고 신제품이나 프리미엄 가전제품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26일 “삼성이 세탁기, 청소기 등 일부 저가모델 등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해외생산법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공장은 헬스케어 부문, 가전로봇 등 신제품이나 프리미엄제품 위주로 생산하면서 해외법인을 지원하는 주축 사업장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생산제품의 변화로 인해 매출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4조1000억원의 최대매출을 달성한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2013년 글로벌 틈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전개, 매년 20%의 물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에 해외로 이전하는 제품 관련 협력업체는 일부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삼성 측은 협력지원센터 등 지원부서를 통해 물량을 배분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 새 얼굴

## “中企 어려움 해소 적극 나서겠다”

#### 김기수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장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21일 취임한 김기수(53)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장은 “정성을 다하는 고객 응대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나서 고객 만족도가 높은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1977년 국민은행에 입사해 서울 청량리역 지점장, 서울 사가정역 지점장, 호남북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체어맨W 240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26일 쌍용차 체어맨 W에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체어맨W의 실내 좌석 내장재가 화재 발생 시 쉽게 타고,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경우 지난 3월24일부터 4월1일 사이에 제작 판매된 158대이고, 연료탱크 연료누출량 결함의 경우 지난 3월10일부터 4월1일 사이에 판매된 82대 등 총 240대다. /\*연환뉴스

### 기아차 'KV7' 이미지 공개

#### 2011북미국제오토쇼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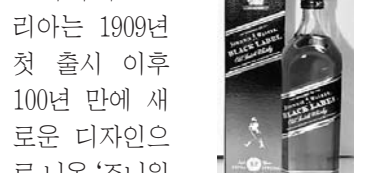


기아자동차는 내년 1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011 북미국제오토쇼'에 출품할 콘셉트카 'KV7'의 렌더링(3차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공개했다.(사진)

콘셉트카 'KV7'은 기아차 미국 디자인센터에서 제작됐으며, 상체 제원은 오토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KV7'은 쏘울, 포르테 롱, 스포티지R 등에서 이어오는 기아차의 혁신적인 디자인 정제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한편 2011 북미국제오토쇼는 내년 1월 10~23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조니워커 블랙라벨

#### 100년 만에 바뀐다



디아지오 리아는 1909년 첫 출시 이후 100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온 '조니워커 블랙라벨(사진 위)'과 영국 시사만화가 제럴드 스킵프가 디자인한 '조니워커 블랙라벨(사진 아래)'을 국내에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디자인된 블랙라벨은 조니워커의 상징인 '스트라이딩 맨(Striding man-걸어가는 남자)'을 병 앞면에 앙각으로 새겨넣었으며 기존 디자인보다 병목의 곡선을 살렸다. /\*연환뉴스

## 중소 기술개발 6288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내년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6288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세부 공고를 내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포함한 기술개발 분야 11개 사업에 4740억원, 산학연 협력 분야 4개 사업에 1548억원이 쓰인다.

중기청은 연구개발 관련 전용 콜센터(1661-1357)를 운영하면서 지원 희망업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들은 성과를 따져 다음 과제를 부여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신 특정 기업이 정부

과제를 여러 번 수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제 선정 평가에서는 우수 평가위원들을 뽑아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연환뉴스

코스피지수	2,029.60 (-7.93)
코스닥지수	491.63 (-2.76)
금리 (국고채 3년)	3.28% (+0.05)
원·달러 환율	1,150.80원 (+2.00)

\*수치는 24일 기준 1주전과 비교

### 로또복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6 11 26 27 28 44	3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321,144,32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3,730,193
3	5개 숫자 일치	1,607,887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 팝콘복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561214
2	1억	3조 392191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85036
5	50만	각조 2303
6	2천	각조 78
		각조 13
		각조 92
		각조 8
7	1천	각조 4
		각조 7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